

적극행정 지원..`사전 컨설팅감사`



[앵커멘트] 감사라고 하면 흔히 잘못된 일을 처벌하는 걸 떠올리기 쉽지만 경기도에는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가 있습니다. 관련 규정이 분명하지 않아 업무에 애를 먹을 때 적법성과 타당성을 컨설팅해주는 건데요. 적극행정을 도왔더니 그 혜택은 도민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.

[리포트]

육교에 오르는 높은 계단 옆에 설치된 승강기와 경사로입니다.

이처럼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기술 지원과 상담, 교육을 맡고 있는 경기도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의 센터장은 그동안 급여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.

보건복지부의 지침에는 지자체가 별도로 정하도록 돼 있지만 경기도 지침은 편의센터장은 무보수로 한다고 규정돼 있었기 때문

경기도 사전 컨설팅감사 결과 보건복지부로부터 적정한 방식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이끌어냈고, 현재 경기도 지침이 개정돼 직책보조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.

[인터뷰] 한은정 /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법인행정국장

"바뀐 규정을 빨리 경기도에 적용할 수 있게끔 컨설팅을 통해서 바로잡게 돼서 시·군센터나 광역센터도 고유의 업무를 함에 있어서 매우 큰 도움이..."

공무원이 사무처리 과정에서 근거법령이 없거나 현실과 동떨어져 애를 먹을 때 업무의 적

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해 컨설팅해주는 경기도 사전 컨설팅감사

지난 2014년에 도입된 제도로 그동안 630건이 접수됐고 이 중 619건을 처리했습니다.

[인터뷰] 안병하 / 광주시 기술감사팀장

"경기도에서 바른 회신이나 업무 협조를 통해서 행정의 방향을 제시해줌으로 인해서 행정을 효율적으로 또한 직원들이 감사의 부담 없이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셔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."

경기도는 3년 넘게 시행한 결과를 바탕으로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를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정했습니다.

모호했던 기존의 감사 신청과 제외 대상을 분명히 규정하는 등 시행 과정 상의 혼선을 줄여 효율성을 높였습니다.

[인터뷰] 한인교 / 경기도 감사총괄담당관

"공무원들이 소극적으로 추진하는 행정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함으로써 도민에게 많은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계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."

사후 처벌에서 사전 지원으로 감사의 패러다임을 바꾼 경기도의 사전 컨설팅감사

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왔더니 2조가 넘는 투자유발과 3만여 명의 일자리 창출이 이뤄졌습니다.

경기GTV 최창순입니다.

<영상취재 : 최홍보, 영상편집 : 강윤식>

©경기GTV | 최창순 cssogm@hanmail.net

입력일 : 2017.11.08 17:23